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하서찬 글 | 예술 그림 | 웅진주니어 | 75쪽

독서 준비	책 읽기 계획 세우기
독서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빨래는 지겨워>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 ‘빨래는 지겨워’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상해 보세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 써 보세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책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빨래 때문에 결석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

참신한 설정, 안정된 문장력, 서사적 흡인력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

특히 <빨래는 지겨워> <빵이 된 동생>은 난센스와 아이러니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려 낸 점,

<악어가 된 엄마 아빠>는 단절된 가족 관계를

날카로운 상상력으로 풍자한 점이 심사 위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① 윗글에서 밑줄 친 부분들을 통해 이 책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

② 윗글에서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낱말을 찾아 그 뜻을 조사해 보세요.

⇨

③ 윗글에서 이 책에 실린 동화의 주제 또는 특징과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1)

이름: _____

💡 다음은 <빨래는 지겨워>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올록볼록 엠보싱. 깨끗하게 빨아 주는 고무장갑!”이라는 문구에 혹해 집 앞 ‘아무거나 마트’에서 며칠 전에 샀다.
- “그게 아니라, 네 엄마가 내 예술을 모독하잖아.”
 - 혼자 깨쳤지만 시계를 보게 되자 다행스러운 일이 많았다.
 - 싸한 송진 냄새가 나는 소나무에 “Happy day”라고 적힌 붉은색 풍선이 걸려 있었다.
 - 하지만 옥하는 성질을 못 이겨 다시 악어가 되기도 했다.
- (나) · “햇볕 쬐면 어지러운데 다행히 흐리네. 꺄꺄꺄.” / ㉠ 아빠는 웃기까지 했다.
- 엄마는 밤에 나를 불렀다. 엄마답지 않게 ㉡ 모습이였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 혹하다 : () · 모독하다 : () · 깨치다 : ()
 · 싸하다 : () · 생생하다 : ()


- ① 일의 이치 따위를 깨달아 알다.
- ② 어떤 것이 아린 듯한 자극성이 있다.
- ③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다.
- ④ 훌쩍 반하거나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
- ⑤ 앞뒤를 헤아림 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나다.

2) 다음 뜻과 (나)의 문맥을 참고하여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어떤 일에 무관심한 상태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태도를 가벼운 놀림조로 이르는 말.
- ㉡ : 기세나 기운이 없어지다.

어휘력 쑥쑥 키우기 (2)

이름 : _____

 다음은 <빨래는 지겨워>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① 다음에는 꼭 30분만 해야지 결심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 있는 어린이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다.
- ② 나는 녀석이 시계를 먼저 볼 줄 알게 된 것에 ()이 났다.
- ③ 녀석은 ()을 지으며 싱긋 웃었다. 초코 카스텔라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다.
- ④ 나는 종일 엄마 아빠를 보살피느라 ()가 되었다.
- ⑤ 자정이 되자 온몸에 ()를 묻히고 나타났다.
- (나) · 엄마의 돈타령이 시작되었다. 매번 지겹지도 않나 똑같은 ㉠레퍼토리다.
- 내 그림은 악어가 오리를 삼키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었다.

1) 문맥상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녹초 : 맥이 풀어져 힘을 못 쓰는 상태.
- 자제력 :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
- 골 : 비위에 거슬리거나 언짢은 일을 당하여 벌컥 내는 화.
- 불우물 : 불에 췌 우물이라는 뜻으로, '보조개'를 이르는 말.
- 비린내 : 날콩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역겹고 매스꺼운 냄새.

2) (나)의 밑줄 친 ㉠, ㉡의 뜻을 아래에서 찾아 알맞게 짝지으세요.


㉠-(), ㉡-()

- ㉢ 반복되는 이야기나 노래.
- ㉣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

빨래는 지겨워 (1)

독해력 기르기

이름 :

 ‘빨래는 지겨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늘 빨래는 일주일 만이다. 나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빨래를 한다. 오늘은 학교도 결석하고 빨래를 했다.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아빠는 파마를 한 긴 머리, 엄마는 짧은 머리다. 엄마는 아빠의 머리채를 여유롭게 잡고 있었다. 아빠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났다. 나는 손뼉을 세 번 쳤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나를 돌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가 말했다. “너 아침잠 많잖아. 왜 벌써 일어났어?”

(나) 아빠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네 엄마가 내 예술을 모독하잖아. 내 글자가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말이야. 감히 서예가한테 말이지. 게다가 더 심한 말도 했어. 동네 건달이라고.”

엄마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그놈의 예술, 예술. 지겨워. 아침에 신문이라도 좀 돌려보라고. 가장이면 성의를 보여야지.” 엄마의 돈타령이 시작되었다. 매번 지겹지도 않나 ㉡똑같은 레퍼토리다. 돈이 없어도 둘이 싸우지만 않으면 나는 훌륭한 어린이가 될 것이다. 엄마는 나를 명문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아빠를 달달 볶았다.

1) (가)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

2) (나)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

3) (나)에서 ‘나’(준이)의 ‘엄마, 아빠’가 싸운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아빠 : 준이 엄마가 인 자신의 예술을 모독했고, 이라는 말도 했음.




엄마 : 준이 아빠가 가장이면서도 타령만 하고 을 벌려는 를 보이지 않았음.

빨래는 지겨워 (2)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이름 : _____

 ‘빨래는 지겨워’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씨도 좋아졌으니 엄마 아빠도 이제 말랐겠지. 마르면 저절로 사람이 될 테니 각자 볼 일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언제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빨게 되었을까. 1학년 때 선생님은 50년쯤 되었다 했고, 2학년 때 선생님은 30년쯤 되었다고 했다. 아무튼 부모님이 싸우면 우리 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빨래한다. 전원 출석이 학교 목표지만 개교 이래 아이들 전부 빨래를 안 한 날은 없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훈화 시간에 그 목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 “어떻게 되긴. 바람에 날려 숲속 여기저기 다니다 빨래가 말라서 사람이 될 뻔했지. 그런데 비가 내리지 뭐야. 다시 빨래가 됐지, 뭐. 오후가 되어서야 바깥 말라 집에 갔는데 네가 사라진 거야. 아빠랑 밤새 찾았어. 얼른 가자. 아빠도 우리를 기다릴 거야.”

나는 엄마에게 업히며 말했다. “엄마, 아빠랑 그만 좀 싸우면 안 돼요? 이제 빨래는 지겨워요.”
엄마가 대답했다. “나도 그래. 노력해 볼게.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훌륭한 어른이 될지 누가 아냐.” 나는 엄마 목을 끌어안았다. 지나가던 참새가 물똥을 짖 쏘다. 어깨에 명중했지만, 빙긋 웃음이 났다.

1) (가), (나)에서 ‘엄마, 아빠’를 빨래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예) 빨래를 한 엄마, 아빠는 마르면 저절로 다시 사람이 된다.

·
·


2) ‘빨래는 지겨워’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나)를 읽고 난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엄마가 노력해 본다고 대답했으니 앞으로 ‘나’는 빨래를 덜 하게 됐을 거야.
- ② 지겹도록 빨래를 했더니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나 봐.
- ③ 빨래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비를 맞아 다시 빨래가 되다니 그걸 누가 봤으면 많이 놀랐겠어.

빵이 된 동생 (1)

독해력 기르기

이름 :

 ‘빵이 된 동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가 외출한 뒤 동생은 빵이 되었다. 순식간이었다. “장난치지 마.”

내가 말했지만 동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빵이라니.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 카스텔라라니. 스펀지 사이사이 초코가 흠뻑 스며든 카스텔라. 여러 번 카스텔라가 된 동생을 흔들었지만 동생은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카스텔라는 동네 바오밥 나무 빵집 빵보다, 엄마랑 가끔 가는 과리땡땡 빵집 빵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나)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고 카스텔라를 조금 떼어 냈다.

동생이 다치면 빨리 치료해 주려고 구급상자도 옆에 놓아두었다. 비명을 지르거나 많이 다쳐 피를 흘리면 어찌나 싶었지만 눈을 떠 보니 카스텔라는 그대로였다. 여전히 진갈색에 네모난 모양이었다. 어? 난 분명 카스텔라를 조금 뜯어 혀 위에서 녹였다. 환상적인 맛은 아니었지만 바오밥나무 빵집과 과리땡땡 빵집 실력의 중간은 되는 맛이였다. 카스텔라는 눈송이처럼 금세 녹아 버렸다. 녀석의 팔다리가거나 볼이거나 눈일까 봐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녀석은 여전히 흠집 하나 없이 반들반들한 초코 카스텔라였다. 엄마에게 나를 고자질하고 웃던 그 반들반들한 눈동자처럼.

1) (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나’의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해 보세요.

<p>일어난 일</p> <p>동생이 ‘나’가 가장 좋아하는 빵, 초코 카스텔라가 되었음.</p>	➔	<p>‘나’의 반응</p>
--	---	-----------------------


2) (나)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p>□□이 다치면 빨리 치료해 주려고 를 □□□ □□ 옆에 놓아두었음.</p>	➔	<p>나는 □□□□를 조금 떼어 내어 □□에서 녹여 먹었음.</p>	➔	<p>동생은 □□ 하나 없이 □□□□ 초코 카스텔라 그대로였음.</p>
--	---	---------------------------------------	---	---

빵이 된 동생(2)

이름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빵이 된 동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배를 문지르며 카스텔라를 먹고 또 먹었다. 점점 내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불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리다 거인이 되어 버릴까 봐 덜컥 겁이 났지만 먹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새 배가 부풀더니 손가락까지 퐁퐁해졌다. 다리도 팽팽하게 부풀고 팔도 팽팽하게 부풀었다. 나는 등실 방 안에 떠올랐다. 나는 어릴 때 유원지에서 잃어버린 풍선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풍선이 허공을 향해 날아가자 녀석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다. 덜컥 겁이 났다. 나는 엄마에게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엄마, 저기…… 윤재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빵이 되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배 많이 고팠지? 전화를 왜 안 받아? 너무 안 받아서 윤재만 데리고 빵집 다녀왔어.” 엄마가 미안한 듯 말했다. 엄마 뒤에서 카스텔라, 아니, 동생 얼굴이 빠죽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 카스텔라를 쳐다봤다. 하지만 내 손은 비어 있었다. 허공에 대고 코를 킁킁해 보았지만 온 집에 진동하던 초코 냄새도 말끔히 사라졌다.

1) (가)에서 ‘나’에게 벌어진 상황과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p style="text-align: center;">벌어진 상황</p>	➔	<p style="text-align: center;">떠오른 생각</p>
---	---	---


2) (나)에서 일어난 일을 ‘엄마’, ‘나’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봅시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p>엄마 : ‘나’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를 받지 않아서 윤재만 데리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에 다녀왔는데, ‘나’가 <input type="text"/> 많이 고팠을 것이 걱정되었음.</p>	<p>‘나’ : 동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 갑자기 <input type="text"/> 이 되었고 말했는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는 사라져 없고 엄마 뒤에 동생이 서 있었음.</p>
---	---

악어가 된 엄마 아빠 (1)

 독해력 기르기

이름 :

 ‘악어가 된 엄마 아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동물원에 갔다. 악어가 된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서다. 엄마와 아빠는 마침 아침 식사 중이었다. 엄마 입으로 오리가 막 들어가려는 참이다. 엄마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야, 저것 봐. 악어가 운다.” 꼬마가 소리를 질렀다.

동물원은 주말이라 오전 10시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다. 꼬마 옆에 무표정한 아줌마가 서 있었다. “믿지 마.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알지? 가짜로 우는 거야.”

꼬마는 과자를 먹으며 대답했다. “몰라.”

(나) 엄마 아빠는 오랫동안 싸웠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악어 같아. 날카로운 이를 가진 악어. 차라리 엄마 아빠가 악어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속으로 소리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불똥이 튀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잠이 들었다. 간절히 엄마 아빠가 악어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이다.



1) (가)의 글과 그림에서 악어가 된 ‘엄마’의 눈물에 대한 ‘꼬마와 ‘아줌마’의 반응을 각각 써 보세요.

꼬마	
아줌마	


2) (나)에서 ‘나’는 싸우는 ‘엄마, 아빠’가 차라리 악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써 보세요.

⇒

악어가 된 엄마 아빠(2)

이름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악어가 된 엄마 아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빠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 관리인 놈이 엉터리구먼, 엉터리야. 우리한테는 너밖에 없는데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돈 버는데.”

엄마도 아빠에 이어 말했다. “그래, 우린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그런데 뭘 더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비아냥거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종이에는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부드럽게 말할 것, 눈 마주칠 것, 이야기 끝까지 들을 것 등 나의 요구 사항이 적혀 있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어제 잠도 안 자고 쓴 것이다.

“냉장고에 붙여 놓을게요. 꼭 실천해 줬으면 해요.”

(나) 그렇게 일주일 이 지나자 엄마의 등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엄마는 내 그림을 거실에 걸어 두고 샴페도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엄마는 가끔 화를 냈지만 그때마다 등껍질이 단단해져 곧 화를 멈췄다. 엄마는 열흘도 지나지 않아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제 동물원에는 아빠 혼자 있었다. 나는 동물원에 엄마가 만들어 준 샌드위치를 갖다주러 갔다. 바위에 던져 놓자 아빠가 와서 우걱우걱 먹었다. 평소 좋아하던 연어 샌드위치였다. 물론 연어는 익히지 않았다.

1) (가)에 나타난 ‘아빠’, ‘엄마’와 ‘나’의 생각의 차이를 파악하여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빠, 엄마 : □□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며 ‘나’밖에 없는데 뭘 더 □□으로 사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음.



‘나’ :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나’의 가족은 □□하지 않으므로 노력이 필요함.

2) (나)에서 ‘엄마’는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아빠’는 아직도 악어인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18 parallel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정답과 해설

3쪽 학생용 활동지1	<p>1) (예시답안) 동생들이 많은 집의 첫째 아이가 부모님을 도와 매일 많은 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 이야기일 것 같다. 2) (예시답안) 옥상에 빨랫줄이 걸려 있고 빨랫줄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다. 보라색 빨래와 회색 빨래에는 각각 성난 표정의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두 빨래는 서로의 몸을 묶고 비틀며 물방울을 짜고 있다. 한 남자아이가 그 아래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서서 물방울을 맞고 있다. 3) 공모전 등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 4) (예시답안) 풍자 :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5) (예시답안) 난센스, 아이러니, 단절된 가족 관계, 날카로운 상상력으로 풍자 등</p>
4쪽 학생용 활동지2	<p>1) 훗하다 : ④, 모독하다 : ③, 깨치다 : ①, 싸하다 : ②, 욱하다 : ⑤ 2) ㉠ : 천하태평, ㉡ : 풀 죽은</p>
5쪽 학생용 활동지3	<p>1) ① 자제력, ② 골, ③ 불우물, ④ 녹초, ⑤ 비리내 2) ㉠-㉡, ㉢-㉣</p>
6쪽 학생용 활동지4	<p>1) 엄마 아빠는 '나(준이)'가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2) 엄마의 돈타령(아빠가 예술 타령을 그만 하고 가장답게 돈을 벌어 오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 3) 아빠 : 서예가, 동네 건달 / 엄마 : 예술, 돈, 성의</p>
7쪽 학생용 활동지5	<p>1) (예시답안) • 싸우는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빨래하게 된 지는 30년쯤이나 50년쯤 되었다. • 학교 개교 이래 아이들 전부 빨래를 안 한 날은 없다. • 빨래가 마르다가 젖으면 사람이 되다가 다시 빨래가 된다. 등 2) ③ (해설) 지금은 어느 집에서나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빨게 되어 있으므로 빨래가 사람으로 변하거나 사람이 빨래로 변하는 걸 봐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p>
8쪽 학생용 활동지6	<p>1)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고 여러 번 카스텔라가 된 동생을 흔들었음. 2) 동생, 구급상자 / 카스텔라, 허 위 / 흠집, 반들반들한</p>
9쪽 학생용 활동지7	<p>1) [벌어진 상황] 카스텔라를 먹고 또 먹어서 온몸이 뻥뻥하게 부풀어서 방 안에 떠올랐음. / [떠오른 생각] 어릴 때 동생이 유원지에서 들고 있던 풍선이 떠올라 날아가 버렸던 일. 2) 엄마 : 전화, 빵집, 배 / '나' : 윤재, 빵, 카스텔라</p>
10쪽 학생용 활동지8	<p>1) 꼬마 : 신기해하고 관심을 보임. 아줌마 : 가짜로 우는 것이라며 믿지 말라고 함. 2) (예시답안) 엄마 아빠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공격하며 싸우는 모습이 마치 악어 같이 느껴졌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은 너무 보기 싫고 속상했기 때문이다.</p>
11쪽 학생용 활동지9	<p>1) 아빠, 엄마 : 세상, 진심 / '나' : 행복 2) 아빠는 '나'의 요구 사항을 적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웅진주니어

값 9,500원



9 788901 225647

ISBN 978-89-01-22564-7

ISBN 978-89-01-03863-6(세트)



74800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디지털
압도록 주의하세요.